

# MRI의 상호작용 가족치료 사례연구

## 1. 사례개요

본 사례는 부부 (남편 58세, 부인 56세)와 세 아들(큰아들 33세, 둘째 아들 29세, 셋째 아들 27세)로 구성된 가족으로 IP인 남편이 6개월 간격으로 2번의 뇌졸중 발작(stroke)을 일으켰는데, 가족치료를 받기 6개월전에 2번째 발작을 일으켰다. 가족의 주된 호소는 IP의 치료에 대한 저항이었다. 즉, IP는 신체기능을 부분적으로 회복하긴 하였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침상에서 보내거나 안락의자에 앉아 T·V를 보는 등 지극히 수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주치의는 IP에게 적당한 신체적 활동을 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IP는 이 치료프로그램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치료센터(BTC)의 내과전문의이면서 정신과 의사인 Eldon Evans 가 IP와 가족을 대상으로 평가면접(evaluative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가족 모두가 참석한 평가면접에서 부인과 아들들이 IP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그들은 IP의 문제를 주로 정신적인 것으로 보고 있었고, IP가 회복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가족들의 주장에 대해 IP는 자신의 문제는 신체적 능력결여(physical inability)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하였다.

단기치료센터에서는 IP가 어떠한 심리치료도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가족성원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적 접근방법을 치료방법으로 택하였다. 따라서 주 치료자인 Watzlawick은 IP에게 접근하는 대신에 문제와 관련된 가족성원들과 치료를 진행하였는데, 특히 IP의 부인과 주로 session을 진행하였다.

부인과 세아들이 참석한 첫 session에서, 부인은 자신의 위치를 ‘남편에게 뭔가를 해주거나 남편이 재활과업을 하도록 촉구하는 원조자(helper)’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IP가 훌륭하게 기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신체적 무능력상태에 있다는 것은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고 하였다. 첫 session에서 치료자는 남편에 대해 원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인의 태도가 처음에는 지지적이었지만, 이제는 그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IP를 돕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 2. 사례분석 (session 2)

Therapist(T): 그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생겼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지...

Wife(W): 그러니까.....

T: 말하자면 그에게 뭔가 변화가 생겨서 지금은 안하지만 일상  
적으로 매우 필요한 일들을 하게 된다면, 부인께서는 그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을 어떻게 가장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지금은 그가 행하지 않지만 예전에 해왔던 일상의 일들과  
대인관계를 그가 스스로 다시 시작한다면, 뭘 보고 알 수  
있죠? (세 사람이 동시에 말한다)

큰아들(S1):... 그건 우리에게 객관적인 신호가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늘 해오던 일을 다시 하게 된다면, 아버지가 예전  
의 정신상태로 되돌아가는 신호를 뜻하겠죠?

T: 맞아요. 그의 태도가 변화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W: 한가지 얘기 할만한 게 있어요. 오후 4시쯤이면 제가 커피  
를 만들어서 컵에 따르곤 해요. 그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죠. 그리고 저는 항상 그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곤해요. 그  
런데 어느날 저는 굉장히 화가 나 있었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는 저를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  
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 말했죠. “당신에게 커피  
를 가져다 주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제부터는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주방에 와서 가져가도록 해요”라  
고요. 그후 부터 직접 자신의 커피를 가져다 마시곤 했어요.

<중 략>

T: 제 생각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은 비록 매우 작은 것 이라 할지라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 평가면접을 녹화한 Video Tape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의 상호작용속에서 놀랄만 한 것을 발견했  
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면담하는 한 시간 동안 적어도 11번  
쯤 생긴 일 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11번이나 일어났는지 말  
씀해주실 분이 있으세요?

S1: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11번쯤 아버지가 뭔가 얘기하려고 하  
면 우리들중 하나가 아버지의 말을 대신 끝맺어주거나 아버지  
가 할 말을 대신 말해 주었던 것 같아요.

둘째아들(S2): 아마 우리가 아버지가 하실 말씀을 암시해주거나,  
말씀을 하시도록 자극했던 것 같아요.

T: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과는 좀 다르군요.

S1: 저희가 방해했습니까?

T: 그건 아닙니다

S2: 아버지가 갑자기 울게 되신 것입니까? |

T: 그건 한 두번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

S2: 한두번요? |

T: 제생각에는 어떤 상호작용의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

W: 그렇다면 그이가 두손을 비비던 것을 말씀하시나요? |

T: 아닙니다. 아네요. |

S2: 그렇다면 저희가 마치 한 집단처럼 행동했던 상호작용을 말 |

합니까? |

T: 예! 그래요. |

W: 그게 뭔지 알 수가 없군요. |

T: 저도 같은 구조속에서 찾아낸 작은 사건들입니다. 여러분중 |가족의 상호작용유

누군가 한 사람 또는 여러분 모두가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형을 보다 구체적

“만일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아버지의 건강은 좋아질거예요” |행동으로 제시

“만약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다면 분명히 |

좋아질거예요”라는 말을 여러번 했어요. 이런 여러분의 말에 |

그는 열한번이나 반응을 했어요. 그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

같아요? |

S1: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외면했겠죠. |

T: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어요. |

S1: 무슨 말을 했나요? |

T: 맞아요. 매우 정확하고 특징적인 말이죠. |

S2: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요. |

T: 지금 얘기하는대로 조금 더 얘기해보면, 그의 반응을 알아 맞 |

출 수 있을 것 같은데..... |

W: 손에 관한 게 아니에요? |

T: 아네요. 좀 더 일반적인 거죠. |

W: 아마 분명히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했을 거예요. |

T: 바로 그겁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 모두는 그를 다시 재기 |가족이 시도하고

시키기 위해 매우 힘들게 싸우고 있었어요. 즉, 그에게 어느 |있는 문제해결책에

정도 자신감을 주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멈춰져야 한다고 |대한 IP의 반응

지적하면서 모든 것이 좋아 질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양식을 설명

대응해서 그는 예상했던 대로 “너희들은 날 이해하지 못해”라 |

고 역으로 대답했어요. |

W: 예. “나는 못해”라고 했어요. |

T: “너희들은 이런 다리를 가진 지겨운 느낌을 모를거야 내 손이 |시도한 문제해결책

느끼는 느낌을 알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라고 했죠. 그래 |이 실패한 이유를

서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의 의견은 여기 모인 네 사람이 매우 |설명.그러나 가족

열심히, 솔직하게 긍정적인 변화가 오기를 기대하고 노력하고 |성원을 비난(blame)

있는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그것은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하지 않고, 결과가

마치 결과가 좋지 않은 마술과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그 |좋지 않은 마술이

래서 여러분이 원했던 것은 아무 것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 |라고 재정의

나라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인상을 준 것 같아요. 그	
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게 사실이고 여러분이 그 점을 그에	
게 그렇게 하도록 한 셈이에요. 그리고 그는 여러분 네사람에	
대해 나쁜 감정 즉 전혀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게 된	
거죠. 물론 이것은 제가 그의 생각을 추정해서 말한 것이고 제	
가 그의 마음을 알 까닭은 없지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이	
그가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신하도록 자극한 셈이 되는 거죠.	
<중 략>	
W: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그이는 자신이 필요하면 혼자서 자신을	가족의 아침활동과
돌볼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거나, 이를 닦거나 옷을 입는	관련된 routine을
일들이죠. 아침에 제가 그대로 두면 꽤 때까지 그는 늦도록	얘기함
잠들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일찍 일어나서 8시에 아침을 준	
비하고, 그에게 “아침이 다 되었으니 침대에서 일어나요”라고	
해요.	
T: 그래요?	
W: 그래서 그가 일어나면 이를 닦고 옷을 입은 후에 식당으로	
와요.	
T: 그렇군요. 내일은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	과제부여: 관찰가능한
	행동 즉, 가족의
	일과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
W: 그를 깨우는 것어요?	
T: 예.	
W: 그렇게 할게요. 음식은 준비해놓구요?음식은 식어버리겠군요?	
T: 그러면 그가 “왜 나를 깨우지 않았어?”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실 작정인가요?	
W: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언제인지 알텐데요. 당신	
이 제 시간에 왔었으면 되잖아요”라고 하죠.	
T: 정말 부인께서 그렇게 말할까봐 걱정되는군요.	
W: (웃으며) 어떻게 할까요?	
S1: 잊었다고 얘기하세요.	
W: 내가 남편 깨우는 것을 잊었다고요?	
S2: “토크쇼에 열중하고 있었다”고 하세요.	
T: 굉장히 미안하다고 얘기하세요. “웬 일인지 모르겠군요. 당	과제에 대한 설명
신을 부르는 걸 잊어버렸어요. 정말 미안해요”라고 얘기하세요.	
S1: 그렇다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베이컨과 계란을 식탁	
위에 준비해놓고 아버지가 11시나 그 이후에 일어나서 나오실	
때 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T: 그래야 될지도 모르죠.	
S2: 언제 아버지가 일어나실 지 지켜보자는 거군요.	

S1: 아마도 아버지는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주지 않으려고 무슨	
결정을 내리신 줄 아실 거예요.	
T: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식사는 준비해 놓고, 부인께서는	과제에 대한 설명
단지 잊어버린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만 하세요.	
S1: 그러면 어머니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올때에 간단하게 “5분	
이내에 준비될거예요” 라고 말하면 안돼요 ?	
T: 안돼요. 우리는 그가 알고 있을 거라도 추측할 수 있어요. 왜	과제에 대한 설명
냐하면 몇년동안 계속되어온 일과이기 때문이죠.	
W: 그이는 제가 침실을 나와 부엌에 들어가서, 아침 준비를 최소	
한 10분내에 끝난다는 것을 알아요.	
S1: 10분 후면 준비가 다 되잖아요.	
W: 식탁위에 차려져 있는 거지.	
T: 그러니까 이번에는 잊어버리도록 하죠. 그리고 30분 후에 계	과제에 대한 설명
란과 베이컨은 식어있고, 부인께서는 “당신을 부르는 것을 잊	
다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라고 사과만 하세요.	
S2: 어머니는 준비해 놓고 기다리셔야 합니까?	
S1: 그러면 우리는 씌어리얼이나 먹죠(웃는다).	
W: 저는 단지 잊은거군요.	과제의 수용
T: 그렇습니다.	
S2: 아버지가 긴장하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실 것 같군요.	

### 3. 치료 진행과정 및 종결

두번째 session에서 과제로 부여한 것에 대해 치료자는 확인하였는데, IP의 부인은 남편이 스스로 일어나서 식사를 하긴 하지만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치료자는 IP가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치료자는 저녁 식사에 대한 과제를 부여하였고, 가족은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고, 남편이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다. 변화를 인식하게 된 부인과 아들들은 부여된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마지막 다섯 번째 session에 와서는 IP와 그의 가족들의 반응유형이 바뀌었고, IP의 증세도 호전되었다.

4개월 후에 실시한 추후조사에서 치료를 종결한 후에 IP의 행동과 태도에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한달 후 수주간의 입원을 요하는 심한 발작(stroke)을 일으키게 되었고, 언어장애와 운동능력에 장애를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부인은 가족치료를 통하여 병세가 호전되었던 기간이 매우 행복한 기간이었다고 보고하였다.